

인도네시아 한옥희 선교사 기도소식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요즘 이곳 인도네시아는 지극히 정상화 가운데 예전 처럼 일상의 생활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교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도 힘든 시기들을 지냈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지 못할 귀한 교훈들도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즉,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므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지나온 시간들도 또 다시 회복의 기회들을 주심도 이 모든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이심을 찬양드립니다.

2023년에 첫번째로 드리는 기도소식입니다. 그 동안도 잊지 않으시는 기도와 귀한 동역에 감사를 드리며 지나온 시간의



신학교 소식

신학교는 아직도 펜데믹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모든 신학교들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중안 신학교도 예외는 아니여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신학기에는 신학과 30명 기독교 교육과 30명이 신입생으로 들어오기를 기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거의 80%는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인도네시아의 신학교 상황입니다. 신입생들의 장학금 지원도 인도네시아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번 학기에는 기독교 교육과에서 기독교 교회사의 초기부터 현대까지 요점만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강의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올려드리는 사진은 미주와 캐나다와 한국의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있는 신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더욱 헌신된 주의 일꾼들로 준비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후원을



유치원 사역



저희 솔라 그라시아 유치원은 정상화 이상으로 영아반은 계속하여 새로운 어린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어린이들 이여서 100%의 출석은 어렵지만 10명의 새로운 어린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아반과 유치반의 26명 어린이들도 열심히 유치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부도 많은 발전이 있지만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기도도 잘하는 원아들이 보며 유치원 사역의 소중함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기에는 더 많은 원아들을 보내주셔서 원아들을 기독교신앙을 심는 유치원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고하는 교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으로 원아들을 잘 가르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숙사 사역

기숙사 사역은 아직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지난 해에 팬데믹 이후 두 명이 들어왔는데, 올 7월에 시작되는 신학기에는 3-4명이 더 들어와서 기숙사 안에서 학교교육과 신앙훈련을 통하여 미래 세대에 기독교인으로 사회에서 쓰임받는 여학생들을 양육하는 기숙사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 없으심과 또 이 세상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충성된 동역자님들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소식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옥희 선교사 드립니다